

‘정책 방향 변경’… 이창용 총재, 직설화법에 금융시장 출렁

〈한국은행〉

외신 인터뷰 한마디에 시장 요동
금리인하·전환 모두 가능성 열어

국채선물 매도 확대·증시도 흔들
직설 화법, 채권시장 변동성 키워

최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의 한마디가 금융시장에 충격을 주면서 직설적이고 선제적인 커뮤니케이션 방식에 관심이 쏠린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창용 총재는 얼마전 외신과의 인터뷰에서 금리 인하 뿐만 아니라 ‘정책 방향 전환’ 가능성을 열어두는 발언을 내놓으면서 국내 금융시장이 크게 요동쳤다. 국고채 금리와 환율, 주가를 동시에 흔들었다. 불과 한 달 전, 이 총재의 직설적인 커뮤니케이션이 전임 총재들보다 채권시장 변동성을 크게 키운다는 연구결과가 나온 직후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이 총재는 지난 12일 블룸버그TV와



이창용 한국은행총재가 지난달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의 인터뷰에서 “현재 국내총생산(GDP) 값이 마이너스인 만큼 한은의 공식 입장

은 완화적 통화정책을 유지하는 것”이라고 전제하면서도 “금리 인하의 폭과 시점, 혹은 정책 방향의 변경이 있을지는 앞으로 나올 새로운 데이터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표면적으로는 “데이터를 보고 판단하겠다”는 원론적 메시지만, 시장은 ‘정책 방향의 변경’이란 표현에 예민하게 반응했다. 금리 인하 속도 조절을 넘어 경우에 따라선 금리 인상 가능성까지 열어둔 것 아니냐는 해석으로 번졌다.

직전까지 한은의 기조는 “경기 둔화·마이너스 성장 껍을 감안해 완화 기조를 유지하되, 추가 인하는 지표를 보며 판단하겠다”는 정도였다. 이번 발언은 여기에 ‘필요하면 방향을 다시 틀 수 있다’는 단서를 명시적으로 붙인 셈이다. ‘인하 폭·시기’를 데이터에 연동하는 수준을 넘어, 통화정책의 방향 자체(완화 vs 긴축)를 새 데이터에 따라 바꿀 수 있다고 공개적으로 언급했다는 점이 이전과 다른 지점이다.

바로 다음 날 채권시장은 ‘총재의 발언’을 가격에 반영했다. 10년물 국고채 금리는 장중 연 3.3%를 돌파해 연고점을 경신했고, 3년물 금리 역시 2.9%를 넘어 연중 최고를 새로 썼다. 3년물·10년물 국채선물 시장에서는 외국인 투자자가 하루 동안 3년물 1조5000억원대, 10년물 4000억원대에 이르는 순매도에 나섰다. 채권 매각 대금이 달러로 옮겨가자 원·달러 환율도 덩달아 뛰었다. 주식 시장 역시 외국인 매도가 확대돼 조정을 받았다.

불안이 확산되자 한은은 “평소와 같이 데이터를 바탕으로 금리 인하의 시기·폭과 완화 기조 유지 여부를 종합 판단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일 뿐”이라며 ‘논란’ 진화에 나섰다. 기획재정부도 “국채 금리 급등이 과도한 측면이 있다”는 메시지를 내놓으며 시장 달래기에 동참했다.

‘이창용의 입’ 논쟁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10월 한은 경제연구원 학

술지 ‘경제분석’에는 이 총재의 기자회견 담회 발언이 전임 총재들보다 채권시장 변동성을 더 크게 키운다는 연구가 실렸다.

서울대 유각준 교수·성균관대 조두연 교수 연구팀은 지난 2008년 8월부터 2023년 7월까지 기준금리 결정 직후 기자회견담회와 금융시장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이성태·이주열 전 총재와 이창용 총재 재임기에는 기자회견담회 중 채권시장 변동성이 평상시보다 7~15배 확대됐다. 반면 김중수 전 총재 시절에는 4배 수준에 그쳤다.

특히 이창용 총재 시기에는 변동성 자체가 컸을 뿐 아니라 매파·비둘기 성향의 어조 변화가 금리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 연구보고서는 “이전 총재들과 달리 이 총재의 명확하고 직설적인 커뮤니케이션 스타일이 시장의 민감한 반응을 유도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고 평가했다.

/김주형 기자 gh471@metroseoul.co.kr

비트코인, 7개월 만에 9만 달러 붕괴… 알트코인 ‘반토막’

지난달 최고가 기록 대비 28.8% ↓
트럼프 가상자산 정책 기대감 하락
반감기 맞물린 추세적 하락 분석도

지난달 1BTC당 12만6000달러까지 상승했던 가상자산 대장주 ‘비트코인’의 가격이 9만달러 아래로 하락했다. 주요 알트코인 가격도 연중 최고 대비 40~55% 하락했다. 가격 상승의 원동력이었던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가상자산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빠르게 후퇴하고 있어 서다. 업계에서는 4년마다 찾아오는 ‘반감기’와 맞물린 가격 하락이란 분석도 나온다.

가상자산 시장정보사이트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가상자산 대장주’ 비트코인은 18일 오후 2시께 1BTC당 8만9934달러에 거래됐다. 24시간 전보다 5.54% 급락한 가격으로, 지난달 7일 기록한 사상 최고가(12만6198달러)와 비교해 한 달여 만에 약 28.8% 하락했다. 비트코인 가격이 9만달러 아래로 떨어진 것은 올해 4월 이후 7개월 만이다.



비트코인이 하락을 거듭하며 7개월 만에 9만 달러선이 붕괴한 18일 서울 강남구 빙썬라운지에 설치된 전광판에 비트코인 시세가 나오고 있다. 암호화폐 시장 중계 사이트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17일 오후 10시 30분(미 동부 시간·한국 시간 18일 오후 12시 30분)께 비트코인은 24시간 전보다 5.65% 급락한 8만9997달러를 기록하고 있다. /뉴시스

같은 기간 알트코인(비트코인 이외의 가상자산)의 낙폭은 더 컸다. 1ETH당 4953달러까지 올랐던 이더리움(시총 2위)은 한 달여 만에 약 40% 하락해 3000달러 아래로 내렸고, 리플(XRP·3위)은 44.7%, 바이낸스(BNB·4위)와 솔라나(SOL·5위)는 각각 34.7%, 55% 하락했다. 강제 청산(선물 거래 시 위험 노출 자산

이 강제 매도되는 것)도 빈발했다.

최근 가상자산 가격의 하락이 지속되는 것은 지난해 11월부터 가상자산 가격의 상승 원동력이 됐던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가상자산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잦아든 영향이다.

앞서 트럼프는 지난해 11월 치러진 미국 대선에 앞서 ‘친(親) 가상자산’ 대통

령이 되겠다고 선언했다. 지난해 9월 초 1BTC당 5만9000달러 수준이었던 비트코인은 트럼프가 대선에서 우위를 점하면서 빠르게 상승했고, 트럼프 당선 직후에는 사상 최초로 9만달러를 돌파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출범 이후 전략적 자산으로 비트코인을 비롯한 주요 가상자산을 비축하겠다고 선언했으며, 스테이블코인의 지위를 규정하는 지니어스법, 가상자산의 규제 기관을 명확히 한 클래리티 법, 중앙은행의 가상자산 시장 개입을 막는 반CBDC(중앙은행 디지털 화폐)법 등 가상자산의 제도화를 위한 주요 법안도 입안했다. 시장에서도 비트코인을 비롯한 주요 가상자산의 가격 상승이 이어졌다.

지난달 미 연방정부의 섣다른(업무일 시정지) 이후 트럼프의 지지율이 빠르게 하락하면서, 시장에서는 트럼프 행정부의 ‘친 가상자산’ 정책에 대한 기대감도 잦아들고 있다. 로이터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최근 트럼프의 지지율은 약 40%로 취임 이후 최저 수준을 기록 중이다.

특히 민주당의 지지율이 공화당을 앞지르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임기 중반부터 ‘레임덕(권력 누수)’을 겪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업계에서는 이번 가격 하락이 비트코인의 ‘반감기’와 맞물린 추세적 하락이란 분석도 나온다.

비트코인은 약 4년을 주기로 채굴 보상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반감기가 발생한다. 앞선 4차례의 반감기(2009년·2012년·2016년·2020년)에서는 반감기 직후 1~2년에 걸친 가파른 가격 상승이 발생하고, 이후 가격이 70~90% 급락하는 패턴이 반복됐다. 최근의 반감기는 2024년 4월로, 주요 가상자산 가격이 하락 구간에 진입하면서 시장의 불안감은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가상자산 자산운용사 비트와이즈자산운용의 맷 후건 최고투자책임자(CIO)는 “사람들은 (반감기와 맞물린 상승·하락의) 4년 주기가 반복될까봐 두려워하고 있고, (자산가치가 지금보다) 50% 추가로 하락하는 상황을 겪고 싶어하지 않는다”라면서 “시장심리가 나빠 추가 하락 가능성이 있지만, 내년에는 반등장이 올 것”이라고 분석했다.

/안승진 기자 asj1231@

삼성물산, ‘래미안 원페를라’에 AI 주차장 첫 적용

입주민 평소 주차 데이터 분석
거주동과 가까운 곳 추천·안내

삼성물산 건설부문(이하 삼성물산)은 서울 서초구 ‘래미안 원페를라(당배6 재건축)’에 ‘래미안 AI 주차장’을 최초로 도입한다고 18일 밝혔다.

오는 26일 입주가 시작되는 래미안 원페를라는 총 1097세대, 지하 4층~지상 최고 22층 16개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중 주차장은 지하 1층~지하 4층이다. 일반 주차 1902면, 전기차 충전 구역 101면으로 세대당 1.8대 주차 가능하며, 래미안 AI 주차장을 통해 더 효율적

으로 이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

래미안 AI 주차장은 일반적인 아파트 주차장에 구축되는 주차 관제, 주차 유도, 전기차 충전 시스템을 통합 연동해 최첨단 AI 기술과 결합, 입주자에게 차원이 다른 주차 경험을 제공한다.

삼성물산이 적용한 최첨단 AI 기술은 ▲AI 주차 서비스 ▲AI 전기차 충전 서비스 ▲AI 주차 관리 서비스로 나누어져 제공되며, 입주민 생활 편의와 안전성을 높이고 운영 비용을 줄일 수 있다.

AI 주차 서비스는 입주민의 평소 주차 데이터를 분석해 선호하는 주차 위치나 거주동과 가까운 곳으로 추천·안내한

다. 방문차량의 경우 사전 예약된 정보를 바탕으로 방문하는 동까지 최단 경로와 최적의 주차 위치를 제공한다.

AI 전기차 충전 서비스는 입차시 최적의 충전 위치로 안내하며, 차량번호를 인식해 자동으로 입주민을 인증하고 충전 요금은 관리비에 합산된다. 특히 전기차 충전구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를 조기에 감지하고 대비할 수 있도록 불꽃감지센서 일체형 CCTV가 설치됐다.

김명석 삼성물산 주택사업본부장(부사장)은 “입주민들이 최상의 프리미엄을 느낄 수 있도록 최첨단 AI 주차장을 도입했다”고 말했다. /안상미 기자 smahn1@

KB금융, MSCI ESG평가 ‘AAA’ 획득

KB금융그룹은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의 ‘2025년 MSCI ESG 평가’에서 국내 금융회사 최초로 4회 연속 최상위 등급인 ‘AAA’ 등급을 획득했다고 18일 밝혔다.

MSCI ESG평가는 세계적인 투자 연구 기관인 MSCI에서 매년 전 세계 약 8500개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ESG 경영 성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대표적인 글로벌 ESG 평가지표 중 하나다. MSCI는 AAA(최고)부터 CCC(최저)까지 총 7단계로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KB금융은 이번 평가에서 ‘기업 지배 구조’, ‘환경영 금융’, ‘인적자본’, ‘정보

보호 및 데이터 보안’ 등 주요 항목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국내 금융사 중 유일하게 ‘AAA’ 등급을 4회 연속 획득함으로써 국내외 최고 수준의 ESG 경영 역량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글로벌 ESG 평가기관들은 ▲이사회 산하 ‘ESG위원회’를 중심으로 구축한 안정적인 지속가능경영 체제 ▲‘KB 그린 웨이브(Green Wave) 2030’ 전략을 통한 녹색·전환금융 확대 ▲ISO 27001·ISMS 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 등 KB금융이 전 계열사와 함께 ESG경영 실천을 강화해 온 점을 지속적으로 높게 평가하고 있다. /안상미 기자